

‘한국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 해남 전통장 주목

우리나라 최초 전통장 ‘동국장’ 미남축제로 시연 호응 미남스토리관 책자 발간·장류 체험 관광 코스 등 개발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해남 전통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했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2024 해남미남축제에서 ‘오감으로 즐기는 미남 장류 여행스토리’를 주제로 특별관인 미남스토리관을 운영했다. 미남스토리관에서는 해남의 전통장 전시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담그기 체험, 장을 활용한 먹거리 및 14개 읍면의 장요리 시연·시식 행사 등이 열렸다.

또한 해남의 전통음식을 연구하는 윤영덕 요리는 종가의 장요리(마늘고추장 떡볶이, 닭장 떡국), 이승희 요리는 지구를 살리는 장요리(황칠간장 요리, 두부장 요리), 윤문희 요리는 이순신의 장요리(평고기 찜, 무밥)와 사찰 장요리(우영 잡채, 버섯 탕수)를 선보였고, 해남군 14개 읍면에서 장 맛으로 소문난 일반 가정의 전통장과 이를 활용한 음식을 전시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전통장인 동국장을 재현한 한안자 명인과 임대웅 전수자가 일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동국장 만들기 시연 및 체험행사도 가져 큰



관심을 모았다.

동국장은 전통식품 명인 제40호에 지정된 해남 한안자 명인이 재현한 전통 된장으로,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지 않고 숙성에 먹는 우리나라 고유의 장이다. 발효군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장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

령 방한 당시 만찬 소스로 쓰인 적도 있다.

또한 이승희 요리는 대흥사의 두부장을 전수받아 두부장 제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두부장을 상품화하는 등 두부장을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두부장의 제조 방법은 특히로 등

2024해남미남축제의 특별관 미남스토리관에서 장 담그기 체험이 진행된 가운데 전통식품명인 제40호 한안자 명인이 동국장 만들기 체험객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록했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명인 지정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관내 전통장류 제조업체 7개소에서 해남의 전통장을 지속적으로 제조하고,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해남군은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지정으로 주목받는 흐름에 발맞춰 미남스토리관 책자 발간과 함께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등 해남만의 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체험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팥밭마실, 해남시티투어와 연계해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우철 군수, ‘희망찬 미래 완도’ 청사진 제시

군의회 시정연설서 내년 ‘치유의 섬 완도 방문 해’ 전략 공유

완도군은 8일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25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군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 군수는 ▲해양치유센터 웰니스 관광지 자리매김, 해양치유산업 6관망 달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수산인의 날, 김의 날 등 국가 행사,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대 체육행사 성

공 개최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 ▲36건의 공모 사업 선정 등을 2024년 성과로 꼽았다. 신 군수는 “미국 항공우주청과 에너지부를 찾아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해조류 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올해는 5만여 군민과 협찬 걸음을 내디뎠던 완도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내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더 역

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군민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한 청사진으로 6대 과제도 제시했다. 6대 과제는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대규모 국제 사업과 SOC 사업 추진 가시화 ▲완도자연 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군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 추진 ▲정주 여건 개선 ·균형 발전 도모 등이다.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

년을 ‘치유의 섬,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해 치유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공공 해양치유 시설 내실화,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4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 실현, 해양·산림·섬치유 연계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해안도로 경관 명소화 등 관광 콘텐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신 군수는 “한 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시대지만 6대 핵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8% 증가한 6천244억원이다. /완도=윤보현기자



‘금마왕자와 월출산 남자’ 영암, 첫 생성형AI 애니 공개

영암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애니메이션 ‘금마왕자와 월출산 남자’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마왕자와 월출산 남자’는 (재)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문화산업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생성형 AI 기술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결과물이다. 애니메이션은 영암군 구전 설화인 ‘금마왕자’를 모티브로 제작진의 해석을 더해 제작됐다. 작품 속 다채로운 이미지·동영상부터 분위기 있는 배경 음악과 캐릭터의 대사·음성까지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아름다운 영암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배경음악도 다양한 분위기를 살려 몰입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암군에서 생성형 AI 기술로 노래나 짧은 영상을 제작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런타임이 17분에 이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YMCA,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 성료

청소년 사법교육 도입·청소년 1천원 택시 등 안전 도출

목포YMCA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최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 목포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6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조성을 목표로, 목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광남 목포YMCA 청소년사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현주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의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8개 청소년 팀이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아이들의 꿈을 품은 실내놀이터 ▲청소년 사법교육 도입 ▲청소년 1천원 택시 ▲학교 근처 병원·약국 설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훈민정음 골든벨 등 안전이 도출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현주 기획복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광남 목포YMCA 청소년사업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YMCA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꾸는 도시, 행복한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강진 자연 속 ‘林과 함께 3일 살기’ 호응

郡, 산림 체험 프로그램

강진군 산림과가 운영하는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을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강진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강진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성과를 거뒀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는 총 110명이다. 45명 중 약 90%는 도심 지역에서 온 방문객이었으며, 숲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재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강진의 특산물인 청자와 한정식 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자와 농산물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내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심화할 예정이다. 계절에 맞는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을 추가하고, 인기 있었던 숲속 트레킹을 강화해 참가자들이 강진의 자연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 시설의 개·보수가 예정돼 있어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적인 설명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재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강진의 특산물인 청자와 한정식 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자와 농산물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내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심화할 예정이다. 계절에 맞는 특색 있는 체험 활동을 추가하고, 인기 있었던 숲속 트레킹을 강화해 참가자들이 강진의 자연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 시설의 개·보수가 예정돼 있어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무안군의회(왼쪽)와 영광군의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영광군의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무안군의회·영광군의회 제공>

무안·영광군의회 ‘尹대통령 규탄·즉각 퇴진 촉구’

헌법 파괴 비상계엄령 행위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습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전남 지방의회에서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8일 “45년 만에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군의회는 헌법 수호를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도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국가 세력의 척결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절차적, 실제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국회를 위한 빠른 결단으로 그나마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김상호기자

신안, ASF 방어 총력

郡, 총기 안전수칙 등 교육

신안군은 “최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8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총기 안전 사용의 중요성과 총기 안전수칙 관련 교육은 정명진 신안경찰서 계장이 교육했으며, ASF대응 방안과 포획 관련 법률 상식은 권성현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이 맡아 현장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발생한 총기 사고 사례를 통해 총기 사고 위험성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육 마무리에는 무엇보다도 세심한 준비와 책임감 있는 행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